

文대통령 “초광역협력이 균형발전 핵심 정책”

정부 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
이용섭 시장,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구상 발표
김영록 지사, 남해안 남중권 신해양·환경수도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

는 초광역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범부처 지원전략 마련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할

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SOC사업 예산 대상 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 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의 사례 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추진사례” 발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체성이 같고 보완관계가 깊은 자치단체 간 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문명체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경제 행정통합은 광주

·전남 공동번영의 길이다”면서 “다만, 지역에서는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정부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신해양·환경수도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균형위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거나 균형위와 행안부를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지치부’를 신설하는 등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오승지·임후성기자

광주 ‘엔젤 투자 유치’ 전국 최하위

유치액 1%에 그쳐...송갑석 “중기부, 지역 유인책 마련해야”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엔젤 투자’의 최근 10년간 광주 지역 유치액과 유치기업 규모가 전국 최하위 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엔젤 투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의 엔젤 투자 유치액은 전체 3조2천781억 중 336억으로 1%에 그쳤다.
엔젤 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금과 경영 자문을 지원해 기업을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개인 단위 투자로, 지역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확보 및 고용 창출 자금을 지원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스타트업 창업

조성을 돕고 있다.
서울은 전체의 46%인 1조5천155억 원을 유치했으며, 경기도는 27%인 8천750억 원을 유치하는 등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유치액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광주의 최근 10년간 투자기업 유치 건도 7천609개 중 1.2%인 93개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49%인 3천733곳, 경기도는 23%인 1천749곳으로 광주의 수십 배 규모였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 벤처 스타트업 창업의 주요 투자원인 엔젤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중기부는 지역에도 엔젤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투자 지원 사업 강화 등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단풍철 무등산 선별검사소 설치

단풍철 산행인구가 증가한 14일 오후 동구 무등산 중심사지구 무등산세계지질공원센터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다음달 14일까지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희망 탐방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김애리기자

전남, 학교·학원 등 ‘연쇄감염’ 잇따라

광주, 외국인·건설현장 확진...방역당국, 추가 감염 차단 총력

광주·전남에서 일상생활 접촉과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광주시·전남도에도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7명(광주 4명·전남 1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서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신규확진자는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1명, 타지역 건설현장 관련 1명, 유증상검사자 2명 등으로 한 자릿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광산구 소재 외국인 등 검사 확진자는 372명, 타지역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남의 경우 구례·목포·여수·장흥·무안·강진 등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남 3317-3329번으로 분류됐다. 확진된 13명 중 11명은 전남 기확진자 접촉, 2명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구례에서 발생한 3명(전남 3318-3320-3321번)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과 지

인이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실시한 목포·구례 중학교 2곳·초등학교 1곳의 교직원·학생 1천250여명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 구례 무 중학교에서는 학생 3명과 교사의 교사 1명, 구례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목포 중학생 2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신규 확진자는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이동량이 많은 가을 행락철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 언제 어디서나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전체 도민 184만명 중 148만명이 2차까지 백신접종을 마쳐 68.1%의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주말·휴일 기습 한파...일부 내륙 첫 서리 예보도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 첫 ‘기습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들이객은 옷 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6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첫 ‘10월 한파’ 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 분포를 보이겠다. 일부 지역에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뒤 그

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깜짝 한파’가 기습을 부릴 전망이다. 또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내륙에선 첫 서리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내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농작물 냉해 피해 등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태훈기자

Today	
김경수의 광주명 ‘최초’ 이야기	5면
호남학 산책·남동 허건 ‘낙지론’	14면
KIA “양현종 꼭 잡겠다”	16면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THE 13TH KJ DAILY PHOTO EXHIBITION

접수 마감 10.29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CE21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 x 14" (장정불요)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심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심사장소: 광주예총 제2전시실
심사방법: 2021년 11월 5일(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 www.kjdaily.com

대상 내역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8일(수) 오후 2시 /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회관 4층다목적실(예정)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입상, 입선작은 주최측에 귀속하여 협회 또는 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 초대작가 16" x 20" 액자 제출, 출품시(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입요망)